

最近 國際石油市場의 動向과 展望

I. 머리말

81年以後 需給緩化가 長期的인 傾向을 보이고 있는 國際石油市場에서는, 82年에도 消費國의 石油輸入·消費가 繼續 減少했다. 또한 生産面에서는 非OPEC諸國의 原油生産이 계속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原油價格의 大幅的인 下落을 防止하기 爲하여 基準原油價格(API 34°, 아라비안 라이트)의 維持가 數次에 걸쳐 確認되었으며, 他原油의 價格引下 및 生産上限의 設定과 石油市場의 狀況을 監視하고, OPEC總會에서 採択하여야 할 手段을 勸告하는 閣僚級의 監視委員會의 設置等이 취해졌다.

그러나 生産上限에 대해서는 一部 會員國 間의 政治的 對立과 그 밖의 다른 나라의 經濟的 困難이 高潮되기도 하여 불과 몇개월만에 事實上 그 意味를 잃게 되고 말았다.

한편 消費國에서는 國際石油價格이 下落하는 가운데 에너지節約 努力에 對한 인센티브가 喪失될 우려도 있으며, 代替에너지 開發의 遲延이 一部에서 나타나는 등 過度한 石油依存으로부터의 脫皮와, 均衡的인 에너지需給構造로의 移行이 늦어지는 것조차도 걱정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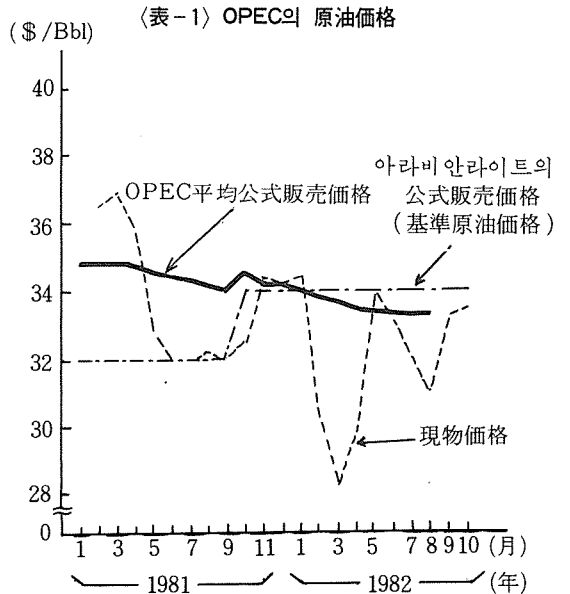
따라서 本文에서는 ①最近의 石油情勢를 概觀하고, ②OPEC의 國際石油市場에 있어서의 支配力의 弱화를 살펴 보고, ③長期的 에너지需給 安定化를 위한 課題에 關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II. 下落한 原油價格

1. 現物價格의 動向

우선 需給狀態等을 敏感하게 反映하는 現物市場의 動向을 代表的 原油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現物價格(以下 現物價格이라 한다)으로 살펴 보자.

81年 中の 現物價格은 거의 一貫되게 公式販賣價格(以下 公式價格이라 한다)을 上廻하였다.(表-1)



資料: 日本에 너지經濟研究所 에너지경제에 依據作成.

(註) 1. 스파트價格은 API34度の 原油임.

2. 平均公式販賣價格은 各國의 代表原油의 公式販賣價格과 生産量을 加重平均하여 구한 것임.

특히 10월의 OPEC 제네바총회에서 ① OPEC의 價格體系가 2年 半만에 再統一되고, ② 基準原油 價格이 배럴당 2달러 (以下 달러라 한다) 引上되어 34달러로 되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 價格을 10월로 遡及하여 引上하였으며, 現物價格도 11월에는 34달러를 上回하게 되었다.

그러나 82년에 들어와서는 冬期에도 不拘하고 需給 緩화가 더 한층 進展됨과 동시에 非OPEC 産油國의 増産도 겹쳐서 OPEC原油에 대한 需要는 回復되지 않고, 1월의 現物價格은 公式販賣價格을 下回하여 30달러 약간 웃돌게 되었다. 또한 3월에는 더욱 下落하여 28달러를 겨우 上廻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後 사우디 아라비아의 減産等の 영향으로 現物價格은 上昇하고 9, 10월은 33달러線에서 거의 安定的으로 되어 갔지만, 11월에 들어와 다시 景氣回復이 늦어지는 等に 基因한 石油需給의 緩화를 背景으로 順調롭게 되었다.

2. OPEC 公式販賣價格의 下落

OPEC 平均公式價格의 推移를 살펴 본다면, 81年 1월의 34달러 83센트로부터 82年 7월의 33달러 38센트로 下落하였다.

말하자면, 그 동안에 있어서 81年 中 리비아, 나이지리아 및 이라크 등에서 公式價格이 引下되었으며, 또한 一部 國家에서는 프리미엄의 引下내지 撤廢가 實施되었다.

그 後, 81年 10월의 제네바총회의 決定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等 3國이 價格을 引下하였지만, 그 밖의 10國은 11월부터 1달러 未滿에서 3달러 以上の 價格引下를 斷行하였다. 뒤이어 12월의 OPEC 아부다비총회에서는 基準原油價格의 維持와 中質·重質原油를 中心으로 油種間 價格差 調整을 위한 原油價格의 若干의 引下가 決定되었다. 이로 인하여 各國은 82年 1월부터 1달러 以內의 價格引下를 實施하여 그 結果 82年 1월의 OPEC 平均公式價格은 34달러가 되어 1年 동안에 1달러 未滿의 下落을 보였다. 게다가 82년에 들어와서 2월에는 이란이 3번에 걸쳐서 合計 4달러의 價格引下를 斷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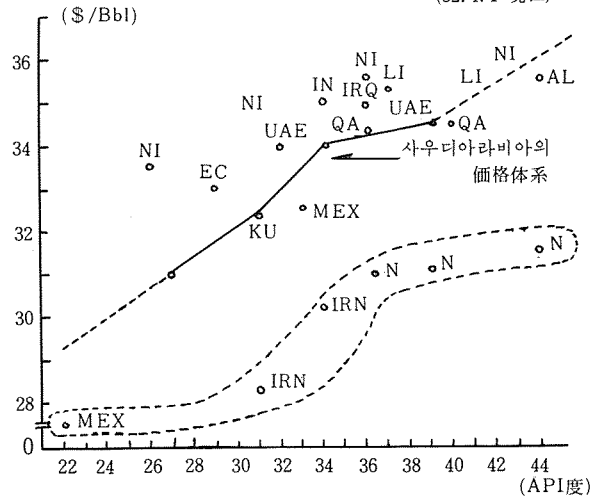
또한 3月 빈OPEC총회 (臨時石油相會談로 열렸으나, 다음날 이것을 總會로 바꾸었다.)에서는 生

産上限(1,800만B/D, 다만 그 直後 사우디 아라비아가 50만B/D의 追加減産을 發表함에 따라, 實質的으로는 1750만B/D로 되었다.)의 設定等の 措置가 取해지면서, 基準原油價格의 維持가 確認되었으며, 또한 이와 關聯하여 輕質·超輕質原油의 油種間 價格差가 縮小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란等を 除外한 OPEC諸國의 大部分은 3月 中에 1달러 前後의 價格引下를 實施하고, 3월의 OPEC 平均公式價格은 33달러 73센트로 되었다. 그 後 生産回復이 進展된 이란이 7월부터 原油價格을 1달러 引下하였지만, 11월에 인도네시아는 47센트 내지 1달러 90센트의 幅으로 價格引下를 發表했다. 以上 살펴 본 바와 같이, OPEC 平均公式價格은 그 生産量의 減少와 함께 下落하였다.

3. 非OPEC 原油價格의 下落과 별 어지는 OPEC 原油價格과의 差

마지막으로 非OPEC諸國에서는 英國, 노르웨이, 멕시코 등의 原油價格은 한층 더 下落하였고, 더우기 그것들은 81年 初에는 OPEC 原油價格과 거의 同一한 水準에 있었으나, 82년에는 OPEC 統一價格體系로부터 乖離된 水準으로 되었다. <表-2>

<表-2> OPEC統一價格體系와 非OPEC原油價格 (82. 4. 1 現在)



(出處)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에 依據作成.

(註) 國名에 대해서는 AL아라비아, NI노르웨이, LI리비아, QA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IRQ이라크, IN인도네시아, EC에콰도르, KU쿠웨이트, IRN이란, N영국 노르웨이, MEX멕시코

이러한 것들의 動向은 우선 北海原油(例로서 포티즈原油를 든다.)로 살펴 본다면, 81年 1월에 39달러를 넘어 섰고, 거의 同質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등의 原油(40달러)와 같은 程度의 價格이었다. 그러나 81年 中에 6月, 11월에 價格引下가 斷行되었으며, 82年 2月 다시 價格을 引下한 後 同原油의 產出國인 英國과 노르웨이가 OPEC 基準原油(具體적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라비안라이트로서 34달러)의 市場實勢價格을 28~29달러로 評價한 일등도 있어서 3월에 北海原油는 4달러나 大幅으로 引下되어 31달러로 되었다.

그 後 6월에는 33달러 50센트로 價格이 引上되어, 同原油는 OPEC 原油價格과의 乖離가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멕시코에서도 똑같은 乖離가 보이고, 82年 3월에 2달러 50센트 引下된 이스무스原油는 32달러 50센트로 되어 가고 있다.

Ⅲ. 減少된 石油消費·輸入과 그 要因

세계의 에너지 消費는 80년에 이어 81년도 前年 對比 0.6% 減少하였다. 그중에서도 石油消費의 減少幅은 커서 81년에 3.3%였고, 82년에도 그 減少 傾向은 繼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消費減少의 要因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로 循環要因으로서 經濟活動의 停滯가 있으며, 둘째로 構造的 要因으로서, ① 石油價格의 上昇을 主因으로 하는 에너지消費效率의 提高, 그중에서도 특히 相對코스트가 비싼 石油의 消費節約의 進展 및 ② 供給의 不安定要因에 石油代替에너지의 利用促進이 더해진 것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石油輸入의 減少에 대해서는 前述한 2가지의 消費減少 要因에 더하여 高金利等に 依한 先進工業國의 過剩在庫의 放出이란 要因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以下에서는 先進工業國을 例로 들어 消費減少의 構造的 要因에 대하여 多少나마 詳細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1. 에너지消費效率의 提高와 代替에너지 利用의 進展

先進工業國에 있어서 1次 에너지의 最終 消費는 78~79년에 經濟成長의 緩慢한 回復에 따라 약간 增加한 後, 80년에는 前年 對比 3%, 81년에는 2% 減少하였다. 또한 그 동안에 먼저 살펴 본 消費減少의 構造的 要因의 影響을 GNP 1單位當의 에너지 消費로 본다면, 그것은 79년부터 81년에 걸쳐서 7% 減少하였으며 73~81年間으로 본다면, 14%의 大幅減少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第1次 石油危機가 일어난 73年을 起點으로 하는 6年間に 있어서의 에너지 消費節約이 第2次 石油危機 後의 2年間에는 3倍로 加速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이처럼 에너지消費效率이 上昇하는 가운데서 非石油에너지의 消費는 79年의 5% 增加에 이어 80, 81년에도 2%씩 增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結果 總에너지消費에서 차지하는 石油依存度는 78年의 53%로부터 81년에는 47%로 低下되었다.

以上에서 살펴 본 石油消費 減少의 構造的 要因의 背後에는, 우선 첫째로 石油을 비롯한 에너지價格의 上昇과, 둘째로 國際石油價格과 國內製品價格과의 關係를 市場에 커니즘에 의한 決定에 맡기는 消費國 政府의 政策이 있었다.

現在 IEA(國際에너지機構)會員國 中 8個國(美國, 英國, 西獨,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및 日本)에서 政府에 의한 石油價格의 管理는 實施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에서 81년에 있어서 世界 에너지 石油消費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美國의 價格과 消費와의 關係를 살펴 보기로 하자.

美國에서는 段階적으로 廢止되어 있었던 國產原油의 價格統制가 81年 1월에 全面 撤廢되었다. 이 措置에 따라 80년에는 輸入原油가 國產原油(兩者 모두 精製業者의 取得價格)를 約 10달러 上回하고 있었지만, 81年 以後가 되면 그 어느 쪽의 價格도 30달러 程度로 上昇하고 또한 格差도 2~3달러로 縮小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石油 最終消費의 57.7%(81年)를 차지하는 輸送部門에 있어서 製品價格 上昇과 消費效率의 改善을 살펴 본다면, 가솔린價格은 原油價格의 統制廢止도 있어서 79~81年 사이에 年24%의 比率로 上昇을 보였다. 또한 消費效率도 1 靚련當 自動車 走行距離가 乘用車의 小型化等도 있어서 78~79年 사이에 1.6%, 79~80年 사이에는 6% 上昇

하였다.

그리고 價格上昇과 石油代替에너지 利用과의 關係를 石炭消費의 約 80% (81年)를 占하는 發電部門에서 생각해 본다면, 79年의 石炭價格은 BTU당 122.4센트로서 重油價格의 4割 程度였지만, 81년에는 155.3센트로 上昇하였는데도 重油의 3割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價格差의 擴大와 法的인 措置(發電用 및 産業用 石炭利用促進法)도 있어서 發電用 燃料의 경우 石油消費에 對한 石炭消費의 比率는 79年 3.5에서 80年 4.7, 81年 5.8로 上昇하여 82年 1~6月에는 7.2로 되고 있다.

2. 石油의 價格彈力性의 上昇

石油消費 減少의 構造的 要因의 背景으로서 石油價格의 上昇을 보아 왔는데, 다음에서는 石油價格의 變動이 石油需要의 變動에 미치는 直接的인 影響을 살펴 보기로 한다.

先進工業國에서는 79년에 OPEC의 原油價格이 急騰한 것으로부터 國內의 石油價格이 上昇하였으며, 그 後 OPEC 平均公式價格이 下落하기 始作한 81年 11月 以後도 美國에서는 國產原油價格의 統制 撤廢의 影響이 있었으며, 또한 西獨, 프랑스등에서는 自國 通貨의 尠달려 弱勢가 深化되어 81年 末까지 그 상승이 계속되었다. 우선 西獨 및 프랑스의 石油消費에 對한 價格 및 所得彈力性을 살펴 보자.

石油는 必需品의 性格도 強하여 價格이 急騰하여도 消費를 激減시키는 일은 困難하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理由로 價格彈力性은 낮아지는 傾向을 더욱 알 수 있다. 1973~78年 사이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第1次 石油危機에 의한 原油價格의 急騰으로 石油價格은 높아졌지만, 價格彈力性은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으며, 西獨, 프랑스에서 각각 0.1, 0.3 程度를 나타냈다.

76年 以後 景氣는 回復局面에 들어서서, 石油消費도 增加하였다. 그 以後, 에너지節約과 代替에너지의 利用이 進展되고, 어느 나라에서도 GDP 1單位當의 石油消費가 76~81年 사이에 24% 以上 減少하는 한편, 石油消費 分野가 相對的으로 限定되는 傾向이므로 78年 以後 약간이긴 하나 所得彈力性은 上昇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價格彈力性은 第2次 石油危機가 發生한 79

年 以後 上昇을 보여, 78~81年 사이에 西獨에서 2.5倍, 프랑스에서는 1.7倍로 所得彈力性의 上昇을 上廻하였다. <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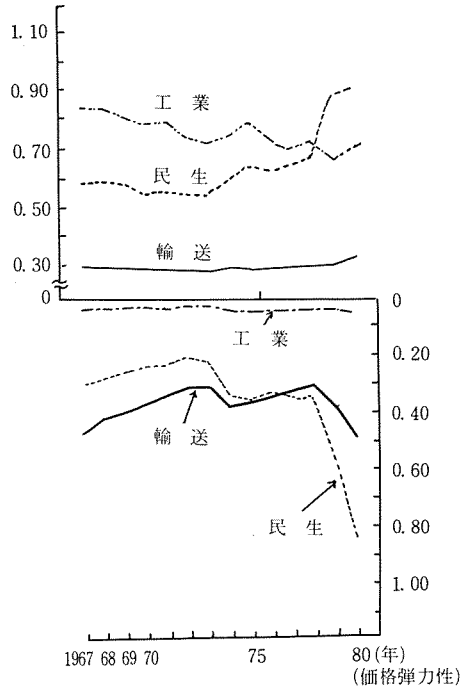
<表-3> 石油消費의 價格彈力性과 所得彈力性

	西 獨		프 랑 스	
	價格彈力性	所得彈力性	價格彈力性	所得彈力性
1973年	0.0799	0.3270	0.2553	0.3559
1974年	0.1115	0.3671	0.3613	0.4651
1975年	0.1035	0.3737	0.3746	0.5087
1976年	0.0995	0.3633	0.3500	0.4941
1977年	0.0986	0.3788	0.3913	0.5380
1978年	0.0898	0.3747	0.3745	0.5354
1979年	0.1499	0.3810	0.3939	0.5407
1980年	0.1836	0.4385	0.5018	0.5882
1981年	0.2278	0.4885	0.6295	0.6676

(資料) OECD "Economic Indicators" 및 各國資料에 依據 作成

(註) 價格·所得의 彈力性은 各各의 變動에 따라 需要가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나타낸다. 즉 價格이 上昇(低下)하면 需要는 減少(增加)하고, 또한 所得이 增加(減少)하면 需要는 增加(減少)하는 關係이다.

<表-4> 美國의 石油消費分野別價格彈力性 (所得彈力性)



(資料) DOE "Annual Report to Congress" "Monthly Energy Review" 등에 依據 作成

또한, 第2次 石油危機 後 81年 末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彈力性의 上昇은 第1次 石油危機 後의 數年 間에 比하여 圧倒的인 크기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79年 以後 消費者의 石油消費行動과 産業에 있어서의 에너지節約投資를 始作으로 하여 여러가지 投資決定의 選擇要因으로 石油價格의 展望을 考慮하게 된 것 등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美國을 例로 들어 石油消費의 分野를 ①輸送, ②民生, ③工業의 各部門으로 나누어서 價格彈力性의 움직임을 살펴 보자. <表-4>

輸送, 民生部門에서는 79年 以後 81년까지 價格彈力性은 상당한 上昇을 나타냈다. 우선 輸送部門에서는 74年 以後 이 部門에 있어서의 實質石油價格의 下落에 따라 彈力性도 低下되었지만, 79年 以後는 다시 價格이 上昇하고나서 81년의 0.5까지 彈力性이 繼續 上昇하였다. 또한 石油消費가 所得要因과 價格要因으로 決定된다고 볼 경우 그 寄与度는 石油危機 以前의 72년에는 각각의 35%, 마이너스 16%였다.

그러나 80년에는 前者가 3%의 増加를 나타냈는데 반하여 後者는 10%로 마이너스 幅이 増加하여, 價格效果에 따라 石油消費가 大幅으로 減少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民生部門에서는 美國의 民生用 에너지市場에서는 電氣·가스·石油 등의 에너지가 競合關係에 있고, 石油消費의 價格彈力性은 다른 消費分野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上昇을 나타냈다.

말하자면, 78~80年 사이에 價格은 年 28%의 比率로 上昇하고 彈力性도 79年 以後 急速히 높아졌으며, 80년에는 거의 0.84로 되어 石油價格이 10% 上昇하면 消費는 8% 以上 減少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工業部門에서는 價格彈力性이 79년보다 약간 増加하였지만, 그 水準은 이미 살펴보았던 두 部門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되고 있다. 이러한 要因으로서, ①代替에너지 利用을 위한 下部構造(infrastructure)가 充分치 못한 것, ②工場内の 余熱을 電力에 轉換시키는 能力이 總發電能力에서 차지하는 比率(80年)이 美國에서는 1.8%로서 西獨의 11.2%와 比較해서 훨씬 낮지만, 逆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能力을 增大시키는 投資에 따라서 價格彈力性도 높아질 余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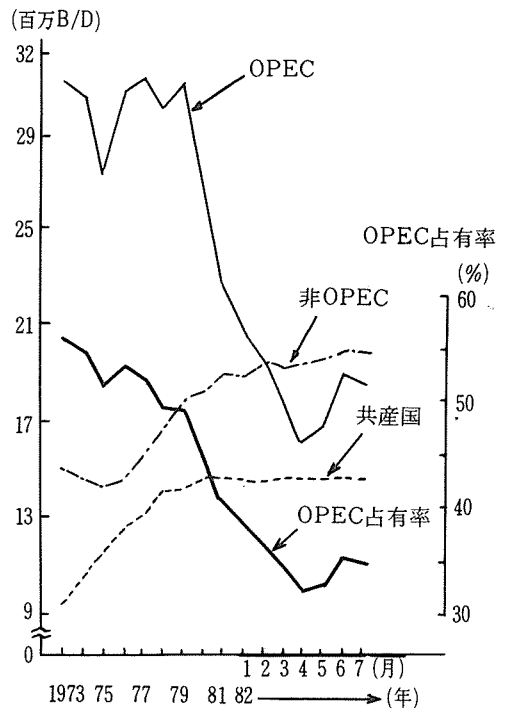
VI. 弱화되는 市場支配力

82年 3月 빈臨時總會에서는 生産上限이 設定된 OPEC가 創立以後 처음으로 生産調整을 試圖해 보았으나, 事實上 失敗로 끝나고 말았으며, 이러한 事情의 흐름은 81~82年의 國際石油市場에 있어서 OPEC의 相對的 地位가 變化한 結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OPEC의 市場支配力의 弱化에 焦點을 맞추어 보자.

1. 非OPEC產油國의 市場參與와 OPEC諸國內의 生産余力의 增大

우선 OPEC가 世界原油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살펴보면, 73, 74년에 約 55%를 占하고 있었으나, 그 後 非OPEC인 美國(알래스카), 英國, 노르웨이(北海) 및 멕시코에서 本格的으로 生産이 始作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여전히 OPEC의 比重은 世界生産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80年 以後가 되면서, ①앞서말한 非OPEC의 產油國과 大規

<表-5> 世界의 原油生産과 OPEC의 占有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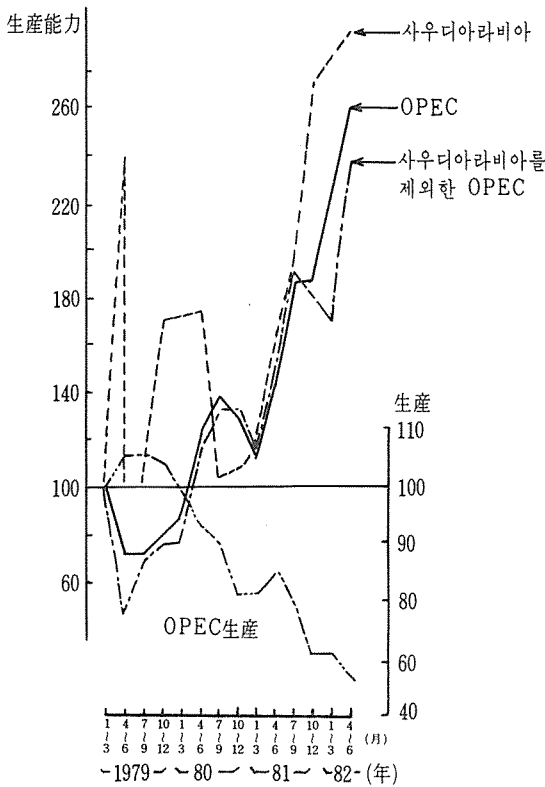
<資料> "Oil and Gas Journal"

模는 아니지만, 이집트, 말레이시아 및 西아프리카 諸國의 生産增加가 더해지고 ②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石油消費가 減少하며, ③消費國이 在庫를 放出하기도 하여서 OPEC의 生産이 急減하고 있다. <表-5> 그 結果 OPEC의 占有率은 82年 1~7月에 是 35%까지 低下하였다.

OPEC諸國 内에서는 第 2次 石油危機인 79年 第 1/4分期의 OPEC에 있어서의 生産余力(數個月間 生産을 維持할 수 있는 最大能力과 生産実績과 의 差는 減少傾向을 나타냈다. 그러나 81年 第2/4分期 以後 이 余力은 拡大를 繼續, 現在는 79年 第 1/4分期 水準의 2倍 以上으로 되었고,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3倍에 達하고 있다 <表-6>

따라서 財政 事情의 差異도 있어서 OPEC内에서

<表-6> OPEC의 原油生産과 그 余力



<資料> "Monthly Energy Review", PIW等에 依據 作成.

<註> 1. 生産余力이란 것은 物理的으로 數個月間 最大限으로 生産(거의 設備能力의 90%程度) 可能量에서 當該期의 實生産을 뺀 것.

2. 1979年의 第 1/4分期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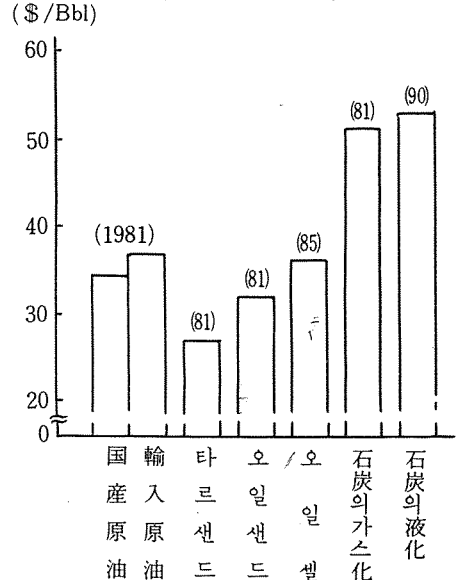
는 生産量에 관한 軋轢이 생겨났다. 이와같이 OPEC를 카르텔로 본 경우의 團結된 힘은 상당히 低下 되었으며, 生産割當을 둘러싼 OPEC諸國內의 対立이 나타나게 되었다.

2. 代替에너지 價格과 不均衡인 原油價格의 設定

첫째로 代替에너지價格과의 比較에 있어서는 모두 美國의 發電部門의 重油와 石炭價格으로 본 것이지만 同部門의 天然가스價格과의 關係에서도 同一하다고 말할 수 있다. 天然가스에 관해서는 一部의 價格統制가 段階的으로 廢止되고 있으며, 石油과의 價格差가 縮少되는 傾向에 있긴 하지만, 82년 초에 있어서도 重油價格 1에 對한 가스價格은 0.66으로 아직 優位에 서있다. 또한 石炭이나 天然가스 가운데 既存의 技術로 利用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開發이 必要하게 되는 그 밖의 代替에너지 生産코스트도 <表-7>에서와 같이 一部 原油價格을 下回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原油價格과 그 生産코스트를 살펴 보면 兩者間의 差가 美國에서는 79年 2달러에서 81年의

<表-7> 原油價格과 에너지코스트



<資料> 백련社(1981年)에 의거

<註> 어느價格도 1981年 價格, ()안은 技術的으로 利用이 可能할 것으로 보이는 時期를 나타냄.

4 달러로 확대되었고, 그 외의 地域에서도 각각 2 달러 以上에서 3달러 以上까지 擴大되고 있다. 게다가 中東原油에 關해서 본다면, 그 良好한 採掘條件 및 豊富한 油井當 產油量으로부터 兩者의 差는 더욱 크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OPEC原油는 대체로 限界利潤이 크고, 또한 現在 利用되고 있는 代替에너지와의 競争力에서 보아도 需要가 激減하는 中이어서 價格引下 壓力를 받기 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需要의 價格彈力性과 그 變動의 增大

先進國의 石油消費의 경우, 價格彈力性의 上昇에 있어서는 이미 보았지만, OECD의 OPEC原油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性도 79年 以後 繼續 높아져서, 78年 第4/4分期의 0.065에서 81年 第4/4 時期에는 0.213까지 上昇하였다. 한편 所得彈力性은 80年의 1/4分期로부터 急激히 높아져 81年의 4/4 分期에는 0.638까지 이르렀다. 이 두가지 彈力性의 上昇은 장래의 OPEC原油 需要의 變動에 關한 不明確함을 增大시키고 또한 OPEC의 寡占의 힘의 發揮을 困難하게 할 可能性의 增大를 示唆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OPEC의 카르텔로서의 團結力을 弱화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上의 세가지 要因外에도 ①82年 7月 빈總會 以來 사우디아라비아가 아프리카 輕質油產油國에 超輕質油의 價格引下를 要求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는 것처럼 消費國의 石油製品 需要의 輕質化에 따라 OPEC各國의 主要 原油間의 相對的 異質性이 나타난 것. ②財政事情의 差異뿐만이 아니라 OPEC 諸國間의 原油埋藏量이 原因으로 되어 原油價格, 生産政策에 있어서 意見이 相衡하는 傾向이 나타난 것. ③一部 諸國間의 政治的·軍事的 對立의 深刻化 등도 더해져 OPEC의 國際石油市場의 支配力은 작아지고 또한 短期的으로 低下된 것 등이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PEC에서는 組織內에서 強制性을 띤 生産限度의 設定을 包含한 生産調整도 82年 7月의 빈總會(生産上限, 生産量의 各國別 割當 및 價格의 油種

間 格差 等에 대한 檢討를 하였지만, 各國間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討議가 中斷된 狀態로 閉會)에서 存在하지 않게 되어 各國이 共通의 利益을 認識하면서도, 基準原油價格을 除外한 油種間價格差(differential)에 關한 協定도 事實上 存在하지 않게 되었다.

V. 앞으로의 展望과 課題

82년에 한층 進展을 보인 國際石油市場의 需給變化는 基本的으로는 앞으로도 當分間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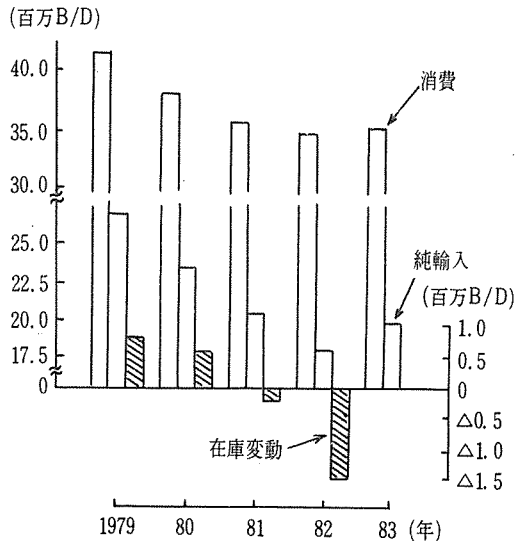
예를들면, OECD의 展望으로 볼 때, 우선 OECD의 石油消費는 82년에 前年對比 2.5% 減少한 後, 83年은 1.2%로 약간의 增加에 머물렀으나, 이러한 消費回復은 83年 後半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83年의 OPEC原油에 대한 需要는 在庫의 放出이 繼續된 82年보다 增加하지만, 81년에 比하여 3% 以上이나 낮은 水準이 될 것으로 보인다.

(表-8)

그러나 ①原油價格이 下落하는 中에서 代替에너지 開發遲延이 一部에서 나타나고, 에너지節約의 인센티브 喪失이 염려되는 등 1次 에너지中의 石油依

(表-8) OPEC의 石油需給 展望



(資料) OECD "Economic Outlook"에 依據

存度は 아직도 높고, ②輸入依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圧倒的인 埋藏량을 갖고 있는 中東諸國의 政治的·軍事的 不安은 높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解消되고 있지 않으며, ③中·長期的으로 볼 때, 北美와 北海等の 非OPEC의 既存油田에서 大幅의 増産이 期待될 수 없는 등 에너지需給構造의 脆弱性은 克服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継続的인 에너지節約 및 代替 에너지의 開發·利用에 대한 努力, 石油의 安定 供給確保 및 非産油開發途上國의 에너지開發을 위한 協力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에너지政策의 面에서는 첫째로 에너지生産의 促進과 最終 消費段階에서의 에너지消費 效率의 持續的인 改善을 위하여 市場메카니즘을 最大限으로 利用할 必要가 있으며, 둘째 에너지源마다 살피 볼 때, ①新規 發電設備投資에의 奨勵, ②天然가스 利用을 위한 條件 整備, ③石炭生産能力의 擴大 및 輸送下部構造(infrastructure) 整備를 위한 支援, ④原子力에너지 利用을 위한 安全度의 提高와 原価 節減을 위한 開發投資등의 課題等이 列挙될 수 있을 것이다.*

海外石油産業動向

日本, 石油製品의 輸出再開

通産省, 우선 韓國에 대한 수출인가

日本정부는 지난 제1차 石油危機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해오던 석유제품의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석유제품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경 석유제품수출가이드라인을 확정 후 韓國에 대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神繩石油精製(본사 東京)에 대해 수출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은 原油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原油는 국내에서 정제하는 이른바 「消費地精製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제1차 石油危機이후에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석유소비국의 에너지소비절약과 代替에너지개발의 진전으로 석유의 공급과잉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精油社의 가동율이 저하되고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日本 通産省은 이러한 석유공급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石油政策을 바꾸어 앞으로 일정한 범위안에서 석유제품의 수출입을 허용,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을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